



질병관리청

# 보 도 참 고 자 료

배 포 일	2021. 6. 15. / (총 6 매)	담당부서	감염병관리과
과 장	이 동 한	전 화	043-719-7140
담 당 자	노 유 미		043-719-7153

##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, 예방수칙 준수 당부

- ◇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환자 발생(60대(남), 경기도 평택시 거주)
- ◇ 어패류 익혀먹기, 바닷물 접촉주의(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), 어패류 5℃ 이하 저온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

□ 질병관리청(청장 정은경)은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○ 확진자는 60대 기저질환자로, 6월 7일 간장계장 섭취력이 있고 6월 9일부터 발열, 전신허약감, 피부병변 등이 나타나 천안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6월 14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되었다.

□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~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, 8~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,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.

○ 여름철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\*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현황: 환자 70명, 사망자 25명

-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, 치사율이 50% 전후로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을 피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.

<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>

간 질환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알코올중독자,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, 약성종양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 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 환자

-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“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, 게, 새우 등 날 것 섭취를 피하고 어패류 조리, 섭취 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”하였다.

- 특히,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<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>

-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.
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.
-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.

- ◇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.
- ◇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.  
\*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,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
- ◇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◇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◇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.

- <붙임>
1. 비브리오패혈증 개요
  2.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통계
  3. 질의응답
  4. 비브리오패혈증 카드뉴스

## 붙임 1 비브리오패혈증 개요

구 분	내 용
정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브리오 패혈균(<i>Vibrio vulnificus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</li> </ul>
질병 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정감염병: 제3급</li> <li>질병코드: ICD-10 A05.3</li> </ul>
병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>Vibrio vulnificus</i></li> <li>- <i>Vibrionaceae</i>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</li> <li>-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발견</li> </ul>
병원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수, 갯벌, 어패류, 사람은 주로 기회 감염됨</li> </ul>
전파 경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</li> <li>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</li> </ul>
잠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2시간 ~ 72시간</li> </ul>
증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1/3은 저혈압이 동반</li> <li>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</li> </ul> </li> </ul>
진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검체(혈액, 대변, 소변, 직장도말물, 구토물, 수포액, 피부병변, 조직)에서 <i>V. vulnificus</i> 분리 동정</li> </ul>
치 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병변절제 :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</li> <li>항생제 치료 : 3세대 세팔로스포린, 플루오로퀴놀론,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</li> </ul>
전염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음</li> </ul>
치사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% 내외</li> </ul>
관 리	<p>&lt;환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자 격리는 불필요</li> </ul>
	<p>&lt;접촉자 관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접촉자 관리 : 불필요</li> <li>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</li> </ul>
예 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적 예방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</li> <li>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</li> </ul> </li> </ul>

## 붙임 2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통계
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

(단위 : 명)

연도 \ 월	발생건수 (사망자수)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21년*	2(0)	0	0	0	1**	0	1	-	-	-	-	-	-
'20년*	70(25)	1	0	0	0	2(1)	2(1)	9(4)	26(7)	22(9)	6(2)	1	1
'19년	42(14)	0	0	0	0	0	1	2	14(7)	14(5)	5(1)	6(1)	0
'18년	47(20)	0	0	0	1	0	2	7(3)	16(8)	10(6)	11(3)	0	0
'17년	46(24)	0	0	0	1	0(1)	1(1)	2	13(8)	19(11)	9(3)	1	0
'16년	56(12)	0	1***	0	0	0	2	5(2)	20(4)	17(4)	9(2)	1	1

\* 2020년, 2021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

\*\* 의심환자(PCR에서 *V.vulnificus* 유전자 확인되었으나 확진검사(배양)에서 음성)

\*\*\* 해외유입

### 붙임 3 질의응답

#### 1.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?

- 비브리오 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

#### 2.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?

-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.
  -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, 병변의 모양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.

#### 3.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.

#### 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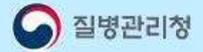
-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. 특히, 고위험군(간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), 당뇨병 환자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 환자 등)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℃ 이하로 저온 저장, 85℃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.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#### 5.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적절한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병변절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.

붙임 4 비브리오패혈증 카드뉴스

2021.06.10.



## 비브리오패혈증

비브리오패혈증균  
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



### 예방

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  
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 
바닷물에 접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

### 원인

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
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



### 증상

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 
1/3은 저혈압이 동반,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 
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



### 치료

병변절제(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),  
항생제 치료

8/9